

# 계 지키면 사회 절로 맑아

### 혜능 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28> · 글

<교계실감라경>에 의하면 여섯 방위 가운데 부모를 상징하는 동쪽에 이어, 남쪽은 스승인데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와 덕목을 말씀하신다.

제자는 스승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올리고 가까이에서 모시며, 열심히 말씀을 듣고 노력하며, 시중을 들고 공손한 태도로 학업을 배우라 하였다. 이에 대해 스승은 제자를 잘 가르치고 지도하며, 이해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시켜 주고, 모든 학업의 지식을 설명해 주고, 친구나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제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어느 곳에서도 존경과 이익을 받도록 보호해 주어야 한다.

또 서쪽은 아내와 자식인데,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고, 경멸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 하며, 가정의 주권을 위임하고, 장식품을 선물해야 한다. 또 아내의 일을 잘 처리해야 하며, 권속을 잘 거느리고, 길을 잘못 들지 말 것이며, 재산을 지키고, 모든 일을 진지하고 능숙하게 대하여야 한다.

또 북쪽의 친구와 동료들에게는 잘 배풀어 보시하고, 상냥하고 친절할 말을 쓰며, 남을 위해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고, 힘을 모아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하며, 정직하게 말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또한 친구와 동료는

늦게 잠자리에 들며, 주어진 것만을 가지고, 일생 동안 힘써 일할 것이며, 주인의 명에와 칭찬을 널리 퍼뜨린다.

마지막으로 위쪽 수행자에게는 친절할 행동과, 친절할 말씨와 친절할 마음가짐으로 대하며, 문을 닫지 않고 재물을 공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수행자는 악을 막아 주고, 선으로 인도하며, 선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아

재가자의 생활윤리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경전인 것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재가자의 계율에 대해 수계를 하고 일생 동안 지켜야 하는 오계와, 한시적으로 지키는 팔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팔관계는 본래 초기불교의 인도에서 행해진 계의 민중화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흔히 계라고 하는 것은 계경에 삼학의

## 남편은 아내 존경하고 경멸 말며 친구간 괴로움 즐거움 함께 하라

### 윤리-2

친구가 술에 취해 방심하고 있을 때 지켜 주며, 방만한 친구의 재산을 지키고, 두려울 때는 친구의 의지처가 되어 주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를 저버리지 않으며, 그의 자손들도 존중한다.

또 아래쪽의 고용인에게 주인은 힘에 맞게 해야 할 일을 나누어 주고, 음식과 급료를 주며, 병에 걸렸을 때는 간호해 주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고, 적절할 때 쉬게 해 준다. 또한 고용인은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고,

직 들지 못한 것을 돌려 주고, 이미 들은 내용을 손질해 주며, 하늘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교계실감라경>에는 남녀 사이의 윤리와 가정에 있어서의 윤리,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윤리, 경제에 관한 윤리 등 재가자의 윤리에 대해 자세히 잘 알려주고 있다.

지면 관계상 <교계실감라경>에서 실하고 있는 개별적인 덕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하나라서 출가 수행자의 기본이 되는 선계(善戒)를 말하는 것이었다. 세속을 떠난 자가 성스러운 길로 들어가는 입문이므로, 세속 생활을 하는 재가자와는 인연이 먼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재가자에게 여덟 가지 계를 수지하게 하고, 하루 동안이라도 마음을 청정히 하고 이 계를 지키면서 자신을 정화시켜 가면 마침내 불퇴전의 위치에서 아래한이 된다고 하셨다.

종교적으로 정화된 사람은 무

익한 살생을 떠나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며, 거짓말이나 음수에 걸림이 없고, 꽃으로 장식하거나 향을 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집착하지 않으며, 본수에 맞지 않게 욕심을 내지 않으므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고, 때 아닌 때 식탐을 하지 않아 절도가 있고, 금은 보석에도 마음을 끌리지 않아 자유롭게 될 것이다.

"계가 구족한 이는 항상 정신이 맑아지 많은 재물을 얻고, 명성을 드날리며, 어떤 집회에서 어느 누구의 가까이에서도 두려움없이 땀땀하고 밝고 맑은 얼굴이 되고, 그의 행이 깨끗하므로 죽을 때 헛소리를 하거나 정신을 잃지 않으며, 몸이 무너져서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는 다섯 가지 이익을 얻게 된다."고 부다고사 삼장은 <정정도론>에서 말하고 있다.

결국 계율은 승속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생활의 좌표이며, 수행의 기반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계를 잘 배우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재가자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할 계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리하고 살펴본다. 이를 계기로 계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지계정정한 생활이 된다면 윤리 도덕에 대한 가치관이 타락으로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가 좀더 맑고 청정한 모습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해인총림 윤원장>

# "세상의 행복과 불행은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

오늘날처럼 격동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큰 방향 속에 동요하고, 실상을 등지며 현상에 따라 움직이는 행복과 명을 무조건 소유하려고 하는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결과는 자기 스스로가 심어놓은 종자의 결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기복에만 정신을 소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종교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내적인 수행으로 바른 마음을 갖는 데 있다고 할 때, 오직 이기적 욕망을 내세워 기도하는 것은, 이 타행을 가르치신 부처님의 본 뜻과는 멀리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불교를 자신들의 인위적인 삶의 행복과 기쁨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복 부인하는 수단을 동원하는 기복 신앙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복이 오로지 개인적인 부귀와 영화만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 종교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 가면서 올바른 일(선업)도 많이 하지만, 나쁜 행위(악업)

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내 이웃들을 지금 이 순간에 살리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안을 위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밀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을 진심된 참회로 녹이고 자리아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고난은 사라지고 심리적 육체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탓으로 업장을 소멸하지 못하면 한없이 윤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서 자비심을 일으키고 행동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이타적'인 수행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업을 쌓지 않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원인이 다른 사람에도 있지만 결국엔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먼 훗날 그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되었을 때 아보면 당시의 집착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자기 욕심에 탐착하여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막는 무명과 무지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지가 모든 불행과 비극의 시초임을 인식했으면 남을 나처럼 생각해 주는 것이 불자의 진정한 도리입니다.

따라서 형식과 형상에만 도취되어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외면한 채 자기애적인 기복신앙으로 나간다면 그건 신앙이기 이전에 미신에 불과하며, 맹목적인 추종으로 인한 맹종과 기복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불교는 현재를 살리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현재를 살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현재를 살리는 길은 현재 내가 몸과 마음을 다 해서 뛰는 겁니다. 여기에서 불교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여기는 또 하나의 차원이 등장합니다. 현재를 살리는 행동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보살행이라고 부릅니다. 보살

행이 바로 현재를 살리는 겁니다. 현재를 살리는 행동. 나와 더불어 사는 내 이웃들을 지금 이 순간에 살리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안을 위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밀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을 진심된 참회로 녹이고 자리아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고난은 사라지고 심리적 육체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탓으로 업장을 소멸하지 못하면 한없이 윤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서 자비심을 일으키고 행동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이타적'인 수행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업을 쌓지 않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 법회 중계

#### 정기법회

(2000년 7월 15일)



법현스님

(자회사 주지)

### 남을 나처럼 생각하고 몸과 마음 다해 뛰는 보살행이 참불자의 길

## 보편·다양성 지닌 연구 테마

### 세계의 불교학 <28> 미국 ③

미국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다루고 있는 불교학의 범주는 인도·티베트·일본·중국·스리랑카와 같은 지역적인 면뿐만 아니라 만달라 상징주의·시간·수행·해석 문제·실재론·인생관·의례 등의 연구 주제에서도 '다양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밖에 철학·심리학·인류학·동양학 등의 인접 학문에서 불교를 연구하는 '보편성'까지도 되고 있다.

다시 말해 불교학을 특정한 테두리로 한정하기보다는 '열린 학문의 장'으로 삼고 다각적인 연구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향은 하버드대의 '세계종교연구소'나 UCLA대의 '한국학연구소'와 같이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다루는 곳에서 불교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김종명(서강대 불교학) 연구교수의 지난해 발표한 '국내불교학 연구의 방향-북미주의 연구 동향과 비교하여'에서 인용하고 있는 1994년 125명의 미국 불교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찰스 프리비시(Charles S. Prebish) 교수의 설문 조사의 결과는, 미국 불교학계의

이러한 경향 즉 '다양성'과 '보편성'을 가능할 수 있게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학위를 받은 대학은 하버드대와 위스콘신대가 각 20명, 시카고대가 18명, 버지니아대가 17명, 예일대가 16명, 콜롬비아대와 템플대가 각 15명, 버클리가 14명, 프린스

톤을 다루고 있으며,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영어, 일어, 중국어, 팔리어, 티베트어 등의 순으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들은 불교 관련 학회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다른 성과물들과 비교함으로써, 연구의 깊이를 더하는 데 적



미국 샌프란시스코 선 센터가 지난 2월 봉행한 수계식 모습.

and Comparative Philosophy), 미국 동양학회(16%·American Oriental Society), 일본종교학회(10%·Society for the Study of Japanese Religions), 중국종교학회(8%·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Religions), 서장학회(8%·Tibet Society), 팔리어학회(7%·Pali Text Society), 국제진(眞)불교학회(7%·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hin Buddhist Studies) 등 다양한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동서 철학>, <국제불교학회지>, <종교>, <동방 불교>, <불교 기독교 학회지>, <중국 철학회지>, <미국동양학회지> <미국종교학회지> 등의 학회지에 연구 과정에서 집필한 소고(小考)를

게재·평가받고 있으며, 각 대학 출판부와 스노우라이온, 위즈덤, 아시아인문학, 삼바라 등의 일반 출판사는 소고를 통해 검증되고 구체화된 응답자들의 연구 성과를 발간하고 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5년간 7~8권의 단편 논문과 1~2권의 책을 저술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불교학은 다양한 곳(대학과 연구소)에서 연구되고 있어 '보편성'을 보일 수밖에 없으며, 대학 및 연구소와 학회 그리고 출판계가 '성과-비평-수용-성과'라는 순환 구조 속에서 연구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 남·북방 불교 의례·교리 등 총망라 대학·학회·출판계 연계교류 활발

턴대와 노스웨스턴대가 각 13명 등으로 조사돼, 불교 관련 연구가 특정대학에 편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의 전공 분야 역시, 37%가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불교, 30%가 일본 중심의 남아시아 불교, 23%가 티베트 중심의 중앙아시아 불교, 10%가 중국·한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 나서고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미국종교학회(76%·American Academy of Religion), 아시아학회(58%·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국제불교학회(48%·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불교·기독교학회(20%·Society for Buddhist-Christian Studies), 아시아와 비교학회(17%·Society for Asian

## 원광 달마도

전화주시면 먼저 달마도를 부처드립니다.



지정된 증명불사 기증조성 일원으로 달마도를 보드립니다. 선공인연공덕을 지어 성불하십시오.

지장선원 포교원 (053)982-4976 달마도 문의 011)813-3679

일단 달마도를 받아보시고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반쯤이라도 마음에 드시면 입금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15-21-0517-898 이 민백

## 정성과 열의 담긴 승복·법복 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선원에서는 "수계비담"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의 의장법에 의하여 의장등록된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고안한 제품이며, 면·모·인·피를 원단에 적절하게 접합하여 입체적으로 만든 자각도 원단이며 원가를 절감하여 기존제품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매우 활동적이며 개량 한복처럼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교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저희 수배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불교발전에 귀의할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기원선원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홍신빌딩1층) 상임전화 (053)764-4114 휴대전화 (011)9850-4400

## 건강 숯 양말 특허상품

반사요법으로 발에서 기가 쏟아진다.

건강양말의 섬유구조

건강숯 양말

- 피로회복, 혈액순환, 향균발생
- 원적외선 차단, 음이온 발생
- 무좀방지, 피로회복

건강부(발이 갈라지는 분)

- 피부노화, 방지 수취해소
- 원적외선 차단

특별할인 전시 판매가격

남 10컬레 35,000  
女 10컬레 30,000 (타지방 부처드림)

대구 문화의 거리에서 2000년 신바람 150인 부채 그림전에 특별 아트 기획 상품으로 선정

전시판매장소: 대구 중구 봉산동 문화의 거리 대림당화랑 (053)424-0115 2000년 7월 21일부터 한달간

전국 취급점 모집 상담문의 053)983-4976 / 011)813-3679